

高유가 난방유 ‘눈속임 판매’ 기승

광주시 남구 월산동 김모(46·주부)씨는 최근 ‘광주 S석유’ 배달업체에 기름을 주문했다. 가정용 난방유 1드럼(200ℓ)을 시중 소비자가격 22만8천원보다 2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홍보지’를 보고 마음이 동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주유가 끝난 후 기름 탱크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평소 200ℓ 주유에 맞춰 기름 탱크에 눈금을 표시해 왔으나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이다.

김씨는 배달원에게 “정량이 못맞다”며 항의했으나, 배달원은 “정량을 넣었다”고 맞섰다. 결국 김씨는 남부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결과 배달원이 주유한 양은 40ℓ 나 적은 160ℓ 에 불과했다.

같은 날 서구 농성동에 사는 이모(여·51)씨도 광주 D석유배달업체에 난방유 등유 200ℓ 를 주문했으나, 7ℓ 가 부족해 서부경찰에 수사

**소비자 기름 탱크 확인 소홀 악용
배달 정량 속이고 주유기 조작도
광주 서·남구 배달업자 2명 입건**

를 의뢰했다.

연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광주 시내 일부 주유소와 석유배달업체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난방유 등유의 정량을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업체들이 많은데다, 이윤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석유배달업체들의 눈속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석유배달업체 수는 383곳으로 2.5t 미만의 주유이

동차량은 350여 대, 난방유 등유 한 드럼당 소비자 가격은 22만8천원, 석유배달업체가 정유사 등으로부터 사들인 가격은 한 드럼당 19만6천원이다. 이들 배달업체들은 난방유 등유 한 드럼당 20만원 선에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한 뒤 가정용 보일러 기름 탱크에 눈금이 따로 매겨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 소비자들의 호수머리를 털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유이동차량 주유기(ℓ 표시계)를 확인하지 않

는다는 점을 악용, 주문받은 기름 중 일부를 미리 빼낸 뒤 가정집에 가서 주문량에 맞춰 주유하는 수법으로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 주유기를 조작해 정량을 속이는 업체도 있다는 게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한국 석유 일반판매소 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판매소 한 집당 하루 평균 50곳씩 배달을 했는데, 현재는 5곳 배달하기도 힘들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정량을 속여 파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는 “주유 전 주유기가 ‘0’으로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기름보일러 기름 탱크에 눈금을 표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기탈취 피의자 조모씨

“애인에 고통 주고 싶었다”

범행 2주 전부터 준비

강화도 군용 무기탈취 사건 피의자 조모(35)씨는 ‘우울증 환자’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범행 2주 전 사전담사까지 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17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초소 인근에서 가진 현장검증에 앞서 이같이 말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조씨는 “결혼을 전제로 10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난 9월 헤어지고 난 뒤 다시 만나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내가 이렇게까지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애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조씨가 범행 2주 전부터 강화도 해변초소 주변을 돌며 병사들의 근무현황을 파악했으며 범행

당일인 지난 6일에는 오후 5시부터 범행현장에 코란도 승용차를 세워놓고 40분간 기다리고 있다가 병사들이 나타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도 지난 9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조씨가 평소 낚시와 승용자동차회 활동을 하며 강화도를 자주 찾아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데다 인적이 드물어 강화도 근무 해병대원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건 당일 진논계비가 많이 내리는 등 날씨가 흐리자 우울한 기분에 사로 잡혀 강도짓을 하러 집을 나선 뒤 강화도 일대를 배회하던 중 순찰하는 군인들이 눈에 띄어 ‘총기를 빼앗아 강도에 활용해야겠다’고 결심, 평소 갖고 다녔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를 실득력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나원침 (7386) 김장두



국민참여 모의재판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상규)은 17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가졌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를 점검·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물증미 없는 상태에서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지를 정점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위재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남 교통사고 잇따라

어제 새벽 10여 명 중경상

17일 새벽 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1시20분께 광양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5km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이를 뒤따라오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모(46)씨 등 두 차에 타고 있던 7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앞서 이날 새벽 0시 40분께 신안군의 한 도로에서는 주모(25)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전선주 전선을 피하려다 도로 옆 논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뒤집히면서 차에 타고 있던 주씨 등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황모(여·30)씨 등 여성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살인 부른 부부싸움
진도서 50대 女 피살**

진도 경찰은 17일 부부싸움 중 아내 몸을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박모(50)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40분께 진도군 진도읍 자신이 운영하는 횡집에서 아내 조모(50)씨가 식당일을 소홀히 하고 종교활동에만 심취해 있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조씨의 몸에 휘발유 1.5ℓ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철도, 연도, 도로, 아파트

KCC광호, 시스템광호 생산·시공

▶ 02-0620-1114-1101 ▶ 051-0000-1111-1100

(주)본드나리 KCC·철도, 연도, 도로, 아파트

실리콘·방수재·합작재·타이브

▶ 010-9829-1114-1101 ▶ 010-9829-1111-1101

상나팔

○...완도에 사는 50대 어민이 바다에 설치한 양식장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잡혀 500만원에 위판.

○...17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남 오전 9시께 완도군 소안면 월항리 북쪽 4km지점 해상에서 완도선적 2급 '진영호' 선장 김모(59)씨가 처놓은 해태양식장 시설물 고정 로프에 길이 7m, 몸통둘레 2m, 무게 2t 가량의 밍크고래가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는 것.

○...해경은 고래가 먹이를 찾다 다니다 로프에 걸려 죽은 것으로 보고, 죽은 고래를 신고자인 김 선장에게 전달.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선거비용 부풀려 신고 벌금 100만원

광주지법 선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과다 환급받기 위해 공보물 제작비를 부풀려 신고한 정당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17일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모 정당 광주시당 회계책임자이자 광주시장 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윤씨는 A씨가 유표 투표 수의 10%

이상을 얻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게 되자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을 더 많이 보전받기 위해 제작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12페이지 분량의 공보물 가운데 전체 지면의 70% 가량을 A씨를 위해, 30%는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후보를 위해 할애해 1억 700여 만 원을 들여 55만여 부를 제작하고 도 선거가 끝난 뒤 A씨가 자신의 부담비율(70%)에 따라 1억7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급 승용차만 골라 역대 절도

전문털이범에 5년 중형 선고

상습적으로 고급 승용차만을 골라 털어온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 단독 김종복 판사는 17일 고급 차 안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정모(24)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범행 전력과 수법, 횡수 등 같은 범행을 계획·조직적으로 반복한 점을 감

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명씩 짝을 지어 지난 1월3일 오후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길거리에서 세워진 다이내스티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쇠 자로 해제한 뒤 현금 40만원과 주민등록증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 초까지 135차례에 걸쳐 다이내스티·에쿠스·체어맨·오피러스 등 고급 승용차에서 1억1천여만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 전문메디노기과

www.gocopy.com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중격파 생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 (062)233-5119

광주 상무동 동대문로 51번 422호 3층

네이처쇼와 함께하는

2007 해넘이 · 2008 해맞이 축제

해넘이와 해맞이를 모두 한눈에 보는 대포대의 도시, 관암의 섬, 염포로 오랑제오패

2007년 12월 31일(월) 10:00~18:00

2008년 1월 1일(화) 06:00~17:00